

# 庚午字體訓練都監字本の 書誌的 研究

A Study on the HullyeonDogam-Ja of KyoungO-Ja type

우 정 훈 (Woo, Jung-hoon)\*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본의 서지적 분석 |
| 2. 경오자 鑄造 및 경오자체 훈련도감자 雕造 | 3.1 시기별 분석             |
| 2.1 경오자 鑄造 및 印出本          | 3.2 형태별 분석             |
| 2.2 경오자체 훈련도감자 雕造         | 4. 결 론                 |
| 2.3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본 현황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에는 훈련도감자 판본의 서지적 연구의 일환으로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본을 선정하여 현황 및 시기별, 형태별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알려진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본을 제조사한 결과, 『시전대전』, 『대학언해』, 『시경언해』의 3종의 판본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 1종의 판본을 추가하여 총 8종의 판본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시기별로 가장 처음에 인출한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본은 1610년에 간행된 『주문공교창려선생집』으로 조사되었고, 이어서 1612년에 『사찬』, 『고사촬요』, 『소학제가집주』가 차례로 인출되었다. 판식별로는 모두 사주쌍변이 사용되었고, 행자수별로는 9행16자가 가장 많았다. 인기 및 제작에 참여한 관원의 명단은 8종 중 4종에 기재되었으며, 가장 많이 수록된 인물은 도제조 이항복이다. 주제별로는 자부가 3종, 경부 및 사부가 각 2종, 집부가 1종으로 분석되었다.

要語: 훈련도감자, 경오자체, 경오자체 훈련도감자, 훈련도감자본

## < ABSTRACT >

As part of the study on the edition of HullyeonDogam-Ja (訓練都監字), I focused on HullyeonDogam-Ja of KyoungO-Ja type (庚午字體), analyzing of the current status, time, and form of the edition.

I corrected the errors in the three of already-known editions from the preceding study, *Shijeondaeyeon* (詩傳大全), *Daehak-eonhae* (大學諺解) and *Shigeong-eonhae* (詩經諺解), added one, *Nineteen Abbreviated Histories of Ancient China* (十九史略), and totally analyzed 8 editions.

The first printed-edition was *Jumungonggyo-Chanryesoensaengiip* (朱文公校昌黎先生集) published in 1610. After that, *Sa-chan* (史纂), *Gosachalyo* (攷事撮要), and *Sohakjegajipju* (小學諸家集註) were subsequently printed out in 1612. Byun-Ran (邊欄) was mostly double-lined and used 9/16 in rows and number of letter.

A print record and lists involved officials were included in these 4 editions and Dojejo (都提調) Lee Hang Bok (李恒福) was mentioned most. An analysis by subjects is divided in 3 titles of Ja-bu (子部), 2 titles of Kyong-bu (經部) and Sa-bu (史部), 1 title of Jip-bu (集部).

Key words: HullyeonDogam-Ja, KyoungO-Ja, HullyeonDogam-Ja of KyoungO-Ja type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unghoon@snu.ac.kr)

접수일: 2018년 5월 16일 최초심사일: 2018년 5월 24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11일  
서지학연구, 제74집, 187-206,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187]

## 1. 서론

訓鍊都監은 임진왜란 발발 다음 해인 1593년 8월에 義州로부터 도성으로 돌아오던 도중 선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임시 기구였지만, 1882년 임오군란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약 300년간 존속된 조선 후기 최대의 중앙군영 기구이다.<sup>1)</sup> 훈련도감은 군사기구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병농분리의 제도로 수도에 상주하였기 때문에 둔전운영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에 일면을 구성한 훈련도감의 인쇄 및 출판 활동은 전란으로 인한 복구기의 시점에서 필요한 서적의 인출과 양병을 위한 도감 운영비를 충당하는 목적으로도 기능하였다.

훈련도감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군사기구로서 훈련도감의 설치 및 활동과 조선 후기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취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sup>2)</sup> 훈련도감자본에 대한 서지학적인 접근은 김두중, 백린, 천혜봉 등 1세대 서지학자부터 정리가 되어 훈련도감자본의 세부 서체, 대표 서명 등이 제시되었고, 몇몇 논문에서 판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곤 있다. 하지만 훈련도감에서 인쇄된 판본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 중 김수형(1978)은 가장 먼저 훈련도감자본의 서지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송정숙(2009)은 훈련도감의 경제활동과 인쇄, 출판활동을 설명하며 훈련도감 간행본의 주제별, 연도별, 자체별 분석까지 수행하였다. 하지만 상기 연구는 문헌조사적 방법으로 진행하여 연구방법에 한계가 있으며, 몇몇 오류가 보이고 있다. 또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실시한 금속활자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김성수는 갑진자체훈련도감자를 제외한 갑인자체·경오자체·을해자체·병자자체훈련도감자의 복원을 위한 주조 및 조판실험을 진행하였다.<sup>3)</sup>

본 연구는 훈련도감자 판본 연구의 일환으로, 갑인자체·경오자체·을해자체·병자자체·갑진자체훈련도감자본 중 비교적 서체의 특징이 뚜렷하고 현전본이 희귀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서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판본의 분석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금속활자인 경오자의 주조 및 인출본을 살펴보고, 경오자체훈련도감자 현전본을 대상으로 시기별, 형태별 분석을 통해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서지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1) 『朝鮮王朝實錄』, 宣祖26年(1593) 8月 庚子.

2) 김중수,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鍊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서울: 혜안, 2003); 車文燮, “宣祖朝의 訓鍊都監,” 『史學志』 4(1970).

3) 金斗鐘, “壬辰亂後의 活字印本: 實錄字와 訓鍊都監字,” 『震壇學報』 29·30號 合併號(1966. 12); 白麟, “朝鮮後期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研究(上): 宣祖25~隆熙4年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3號(1969. 3); 金秀亨, “訓鍊都監字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8); 천혜봉, 『한국목활자본』(서울: 범우사, 1993);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書誌學研究』 第42輯(2009. 6); 김성수, “韓構字·訓鍊都監字(木活字)·丙辰倭彦字의 복원을 위한 鑄造(刻字)·組版 연구,” 『(2009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조선 후기 한국의 금속활자』(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 2. 경오자 鑄造 및 경오자체훈련도감자 雕造

### 2.1 경오자 鑄造 및 印出本

경오자는 문종 즉위년(1450)에 안평대군의 글씨를 자본 삼아 만든 동활자이다. 그 인본을 경오자본 또는 안평대군자본이라고 하며, 박력 있고 독특한 서체로 인해 타판본과의 비교가 비교적 쉬운 판본이기도 하다. 경오자는 을해자를 주조(1455)할 때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조의 등극을 반대한 정치적인 이유가 그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경오자의 사용 시기는 약 6년간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존본은 그 수가 극히 적다.<sup>4)</sup>

경오자 판본에 관한 선행연구자는 천혜봉(1968), 藤本行部(1986), 남권희(1998), 박문열(2008) 등이 있다.<sup>5)</sup> 천혜봉은 『詳說古文眞寶大全』의 판본을 소개하면서 壬申字說과 庚午字說에 대한 규명과 그 주조시기를 문종즉위년(1450) 7월 4일 이후부터 10월 30일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때 활자의 명칭을 두고 成倪의 『慵齋叢話』를 근거로 임신자(1402년)로 칭한 적도 있었지만,<sup>6)</sup> 일본 足利學校 遺蹟圖書館에서 발견된 『歷代十八史略』 완질본에 기록된 인출기에 의해 논란을 해소하였다.<sup>7)</sup>

등본행부는 일본 京都大學에 소장된 『歷代兵要』를 소개하고 있고,<sup>8)</sup> 남권희는 새로 발견된 경오자본 『新編算學啓蒙』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며 제반 판본을 함께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박문열은 조선전기 금속활자복원사업에 참여하여 『신편산학계몽』을 대상으로 경오자의 복원 연구와 실제 인출을 수행하였다.<sup>9)</sup>

선행연구에 근거한 금속활자 경오자본 현전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 
- 4) 천혜봉(1993), 74-78.  
 5) 千惠鳳, “庚午字攷 - 주로 鑄造年代와 字名을 中心으로,” 『成大論文集』 13輯(1968). ; 臚本幸夫, “庚午字本歷代兵要攷,” 『朝鮮學報』 第119, 120集(1986). ; 南權熙, “庚午字本『新編算學啓蒙』과 諸版本 研究,” 『書誌學研究』 第16集(1998). ; 박문열, “庚午字·乙亥字의 鑄造와 組版에 관한 연구,” 『(2008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조선전기 한국의 금속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6) 『慵齋叢話』 권27, “임신 연간(1452)에 문종께서 다시금 경자자를 녹이고 안평에게 쓰도록 명하여 활자를 주성하고 그 이름을 임신자라 하였다.”라는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7) 인출기는 景泰二年(1451)八月日로 기록되어 있으며, 임신년(1452)보다 먼저 인출되었기에 경오자설로 굳어졌다. 천혜봉(1993).  
 8) 이 자료는 최근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2018.2.19.~24 기간 동안 일본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고 문헌을 새로 발굴하였다는 발표와 함께 『역대병요』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로 발표하였다(동아일보).  
 9) 이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경오자판 및 경오자와 관련된 판의 인본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南風先生近體詩抄』가 주목된다(박문열(2009), 209). 규장각에 소장된 이 판본은 판식이 경오자의 판식과 흡사한 사주단편, 반엽 11행18자, 내향흑어미의 판식을 지니고 있다. 목활자의 판본으로 서지에는 경오자방목활자로 기재되어 있다. 자체는 안평대군자를 모각한 목활자본으로 사료되며, 임란 이전의 판본으로 추정되지만, 추후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1> 경오자본 現傳 현황

	서명	간행년	변란	행자수	어미	소장처	사부분류
1	詳說古文眞寶大全	景泰1 (1450)印	四周單邊	9/15	內向黑	日本 龍谷大學圖書館 (零本4冊) 등 <sup>10)</sup>	集部 總集類
2	歷代十八史略	景泰2 (1451)印	四周單邊	10/17	內向黑	日本 足利學校 遺蹟圖書館(10冊)	史部 別史類
3	歷代兵要	[景泰2 (1451)印]	四周單邊	10/17	內向黑	日本 京都大學圖書館	史部 別史類
4	新編算學啓蒙 <sup>11)</sup>	景泰2 (1451)印	圖, 四周單邊	10/17	內向黑	청주고인쇄박물관 (全3卷3冊)	子部 天文· 算法類 算書
5	昌黎先生集 <sup>12)</sup>	[景泰1 (1450)]	四周雙邊	10/17	內向黑	개인소장	集部 別集類

현전하는 경오자본 판본은 5종으로 파악된다. 경오자본의 권말에는 인출기록인 鑄字跋이 있는데, 세종 4년(1422)의 卞季良의 庚子字 跋文과 세종 16년(1434) 金鑣의 甲寅字 跋文에 이어 “景泰二年(1451)八月日 印出”의 인기가 있다. 현전본 중 주자발본은 『歷代十八史略』과 『算學啓蒙』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외의 다른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古文眞寶大全』과 『十八史略』은 실록에 반사 기록이 있는데, 日本 龍谷大學圖書館 소장본과 足利大學圖書館에 소장된 판본에 내사기는 없지만, 『宣賜之記』가 압인되어 있어 내사본임을 알 수 있으며, 간행 1년 후에 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현전본은 없지만, 문종즉위년(1450) 10월에 『소학』 인출 관련 기사는 경오자본으로도 주조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근일에 소학 인출을 시작하여 이 책 인출이 끝나면 즉시 모두 주자소로 돌려주겠다.”<sup>14)</sup> 라는 기사와 이후 12월에 마치는 기사에 “근일에 정음청에서 소학 인출을 마쳤으니, 그 주자는 응당 주자소로 내려야 한다.”<sup>15)</sup> 로 보아 정음청에서 소학의 인출을 마감한 시점이 1450년 12월이고, 활자는 정음청에서 주자소로 환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오자가 주성되던 주자소에서는 공공연히 불경을 인출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유신들의 상소로 인해 주자소를 폐지하고 정음청으로 옮기게 되지만, 이곳에서 경오자가 주조되게 된다. 이후에도 정음청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소가 오르자, 결국 『소학』의 인쇄를 마지막으로 정음청 소장 주자는 다시 주자소로 환원되고, 단종 즉위년(1452)

10)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前集 권7-8), 아단문고(後集 권3-6), 규장각(後集 목록, 권1), 성암(前集 일부), 청주고인쇄박물관(後集 권1), 고려대(後集 권2-3), 연세대(前集 권9-12, 後集 권7-10), 고려대(後集 권2-3, 10)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상설고문진보대전』의 경오자본 판식사항은 정재철(2008)의 논문이 참고된다. 鄭載喆, “금속활자본 『詳說古文眞寶大全』의 문헌학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1권(2008), 240-241.

11) 『신편산학계몽』은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으로 2010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으며, 3권3책의 완질본으로 남아있다.

12) 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서울: 범우, 2012), 119. ; 『창려선생집』은 개인(윤형두)소장본으로 권1만 남은 영본1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차후 실사가 필요하다.

13) 『朝鮮王朝實錄』 단종즉위년(1452) 8월 8日條. “頒賜十八史略. 古文眞寶.”

14) 『朝鮮王朝實錄』 문종즉위년(1450) 10월 30日條.

15) 『朝鮮王朝實錄』 문종즉위년(1450) 12월 17日條.

11월에는 정음정도 혁파된다.<sup>16)</sup>

이후 경오자와 관련한 기사로 成宗이 金永堅에게 지금 책의 간행에 사용되는 활자의 종류를 묻자, 답으로 “책의 인쇄에는 갑인년, 을해년에 주조한 활자를 언급한 뒤 경오자가 가장 좋으며, 안평대군의 글씨로 이미 훼손되어 강희안에게 명한 을해자를 사용한다.”는 실록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sup>17)</sup> 한편, 실록에 안평자라는 명칭으로 경오자를 언급하는 기사로는,

“爵賞은 군주가 덕있는 이에게 내리는 도구이니, 사람마다 가벼이 주어서는 안된다. 변란 이후로 너무나 외람되어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이다. 근일 李震亨 - 안평자 고문진보 진상 - 과 具崇 - 좌전 진상 - 이 서책을 진상하였다.”<sup>18)</sup>

“司正 李希憲이 안평군자 고문진보 7책을 바쳤다. 속마 1필을 내리라 명하였다.”<sup>19)</sup>

등이 있는데, 이는 당시에 경오자본을 쉽게 구할 수 없었거나, 경오자를 모각한 안평활자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20)</sup>

## 2.2 경오자체훈련도감자 雕造

훈련도감에 의한 인쇄출판기능은 전후 복구기의 시기에서 지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협의적으로는 임란이후 중앙의 제반 출판 환경이 붕괴된 상태에서 인쇄를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부족한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란으로 인한 서책의 소실로 인쇄기구로서 훈련도감이 그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조선전기의 활자체를 모각한 목활자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다량의 인쇄 및 출판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훈련도감이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책의 판매를 통한 경비 부족을 충당한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훈련도감자본에 없는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에서 볼 수

16) 신정엽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전기에 유통된 소학은 명판본을 복각한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과 『소학대문』이며, 청분실서목에 기록된 경자자복각본 『소학대문』을 근거로, 경자자로 『소학대문』을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록에 언급된 소학은 『소학대문』을 가리킨다고 추정할 수 있다.

17) 『朝鮮王朝實錄』 성종5년(1474) 11월 22日條.

18) 『朝鮮王朝實錄』 선조34년(1601) 3월 19日條.

19) 『朝鮮王朝實錄』 선조36년(1603) 12월 29日條.

20) 이진형과 이희원이 진상한 『고문진보』는 문종연간 금속활자로 인출한 경오자본 서책을 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안평활자라는 명칭이 1580년에 사용된 기록이 있기에 주목된다. 심경호(1996)의 연구에 의하면, 월정 윤근수(1537~1616)의 문집 『月汀集』을 인용하며 그가 송도(개성)부유수로 있던 만력경진년(1580)에 안평활자로 韓文(주문공교창려선생집)을 인쇄한 기록을 찾아냈다. 『월정집』에 기록된 『題韓君彥良韓文後』에는 “...『韓文』은 정말로 그가 즐겨본 책이다. 지금 그것을 인쇄하였는데, 안평활자를 이용하였다. (중략)... 萬曆庚辰(1580)臘月上浣 松都留守府館舍”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안평활자가 상기 2건의 실록 기사에서 언급된 안평자를 지칭함을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이는 새로운 판본 및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기때 주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沈慶昊, “宣祖·光海君朝의 韓愈文과 史記 研鑽에 관하여 - 韓愈文과 『史纂』의 懸吐와 註解를 중심으로 -”, 『서지학보』 제17호(1996), 16-18.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제작 동기는 분명히 판매를 위한 목적을 갖고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항복의 『백사집』의 발문편을 보면, 『한창려집』, 『사찬』, 『소학집설』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발문은 당시 훈련도감에서 수행한 인출기능, 상업기능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며, 훈련도감자본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sup>21)</sup> 『창려집』의 발문의 내용을 보면,

도감에서 둔전(屯田)을 혁파한 이후로는 모든 군량을 충족시키는 방도라면 반드시 사소한 일까지 다 빠뜨림이 없이 추진해 오면서, 간혹 여러 서책을 간행하여 이를 팔아서 군량을 저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뒤에安平大君이 쓴印本 두어 서책을 얻어 이를 베껴 새겨서 활자로 만들어 놓으니, 글자 모양이 원만하여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이 활자를 가지고 맨 먼저 이 책을 인쇄해 놓으니, 이에好事하는 사대부들이 서로 다투어 사려고 달려왔다. 마침내 이것을 팔아서 때에 따라 소모시키기도 하고 불리기도 하면서, 그 잉여분이 축적되자, 庫人이 여유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못 工人들의 祿米를 모두 이자로 충당하게 한 결과,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이 되고 오히려 남은 增息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養兵의 이로운만 되겠는가. 또한 武에 文을 붙여서 서로 인연하며 長養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간행하는 책들을 대부분 小秩을 표준으로 삼아서 팔리기 쉬운 방도를 구하고 있고, 심지어 古經大傳에 이르러서는 마치 素書나 隱文처럼 여기어 俗士들이 팔을 내저어 돌아보지도 않으므로, 이 고경 대전을 간행할 겨를이 없는 점이다. 아, 時勢에 따라 팔아서 장사만 하기로 들면 어찌 서책뿐이겠는가. 차후 이 일을 하는 이들이 만일 이번 일을 좇아 더욱 크게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10년 뒤에는 우리 동방의 서적들이 장차 찬란하게 汗牛를 이룰 것이고 보면, 이 책을 맨 먼저 간행한 것은 다만 큰 강물 근원의 작은 샘이 될 뿐이니, 후일의 군자들은 힘쓸지어다.<sup>22)</sup>

이 발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수 얻을 수 있는데, 안평대군이 쓴 인본을 놓고 경오자체훈련도감자를 만들었다는 점, 호사가들에게 서적을 판매하여 훈련도감 운영비로 충당한 점, 고경대전을 간행할 수 없어 팔리기 쉬운 책들만을 간행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안평대군의 활자를 얻어 『주문공교창려선생집』을 가장 먼저 인쇄하였다고 하니,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판본 선후관계를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발문 기록에 의하면 『주문공교창려선생집』(1610년 8월), 『사찬』(1612년 5월), 『소학제가집주』(1612년 11월)의 순서로 간행되었고, 현전본도 남아있다.

송정숙(2009)의 연구에 의하면, 훈련도감의 서적 인출은 훈련도감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병서출판, 국정 운영을 위한 출판, 판매용 서적을 위한 출판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sup>23)</sup> 즉 병서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필요한 서적과 판매용 서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발문에서 보듯이, “호사가들이 다투어 사갔다”, “소질을 표준으로 삼아 팔리기 쉬운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목적은 판매용 서적을 위한 출판의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다.

21) 『白沙集』 권2: 수록된 발문은 晦齋先生遺稿跋, 訓鍊都監印韓昌黎集跋, 東嶽道人朝天錄跋, 史纂後跋, 小學集說跋이다.

22) 『백사집』, 권2, 訓鍊都監印韓昌黎集跋.

23) 송정숙(2009), 284.

### 2.3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현황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은 모두 9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를 답습하여 지금까지 오류로 남은 판본이 있는 바, <표 2>의 음영으로 표기된 3종이다.<sup>24)</sup>

천혜봉(2001)은 『한국목활자본』의 훈련도감자본편에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다음 6종을 설명하고 있다.<sup>25)</sup>

광해군 2년(1610)	『朱文公校昌黎先生集』
광해군 3년(1611)	『大學諺解』
광해군 4년(1612)	『小學諸家集註』, 『史纂』
광해군 5년(1613)	『詩經諺解』, 『攷事撮要』

하지만, 연구자가 각 기관의 목록을 조사한 한 결과, 『대학언해』 및 『시경언해』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해당 원인은 바로 김두중 저술의 『韓國古印刷技術史』(1981)로 추정된다.<sup>26)</sup> 이 책에 수록된 안평대군자체훈련도감자본에는 <표 2>와 같이 10종을 설명하고 있고, 비고란에 전거를 수록하고 있다.<sup>27)</sup>

<표 2> 『한국고인쇄기술사』 수록 안평대군자체훈련도감자

NO	書名	刊行年度	備考
1	朱文公校昌黎先生集 40권	光海君 2年(1610)	國立圖書館 一山文庫
2	詩傳大全 10권	光海君 2年(1610)	國立圖書館 一山文庫
3	書傳大全 10권	光海君 2年(1610)	國立圖書館 一山文庫
4	大學諺解 1권	光海君 3年(1611)	奎章閣圖書總目
5	小學諸家集 6권 4책	光海君 4年(1612)	奎章閣圖書總目
6	史纂 12권	光海君 4年(1612)	國立圖書館 一山文庫
7	史纂抄選 2책	光海君 4年(1612)	國立圖書館 一山文庫
8	詩經諺解 20권 10책	光海君 5年(1613)	奎章閣圖書總目
9	攷事撮要 2책	光海君 5年(1613)	奎章閣圖書總目
10	孝經大義 1책	未詳	高麗大學校 華山文庫

24) 훈련도감자본의 판본에 관한 선행연구자인 김수형(1978)의 연구에서는, 상기 소개된 6종의 판본에 『대학언해』를 제외하고, 추가로 『주문공교창려선생외집』, 『서전대전』, 『효경대의』를 소개하며 8종을 대상으로 삼았고, 송정숙(2009)의 연구에서는 상기 6종의 판본에 『사찬초선』, 『서전대전』, 『효경대의』를 추가하여 총 9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25) 천혜봉(200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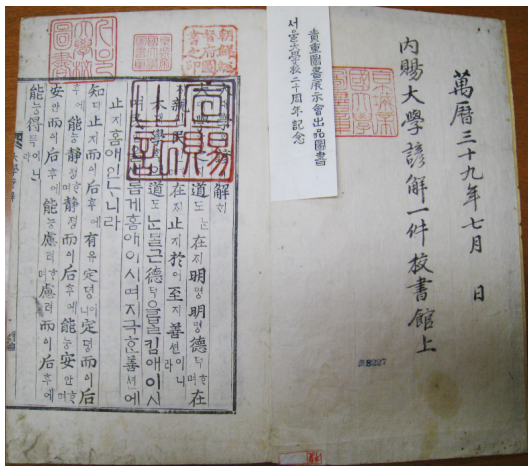
26) 선행연구자인 천혜봉의 『한국목활자본』은 이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록하였고, 송정숙(2009)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졌다. 반면, 김수형의 연구에서는 『대학언해』는 목록에서 누락되었고, 『시경언해』는 갑인자체훈련도감자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27) 김두중은 훈련도감자를 蜀體字體, 安平大君字體, 乙亥字體, 甲辰字體의 4종류로 구분하였다(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1981), 289).

광해군 3년(1611)의 『대학언해』와 광해군 5년(1613)의 『시경언해』의 소장 근거는 규장각도서총 목이다. 규장각 소장 『대학언해』의 판본 중 훈련도감자본은 교서관에 만력39년(1611)에 내사된 판본으로 청구번호 <奎 4027> 1종이며, 실사한 결과, 경오자체가 아닌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이다. 즉 『한국고인쇄기술사』의 안평대군자체훈련도감자 및 『한국목활자본』에 수록된 『대학언해』와 『시경언해』는 경오자체가 아닌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조사되었다.<sup>28)</sup>

규장각 소장 『시경언해』의 판본을 조사한 결과, 훈련도감자본으로는 만력41년(1613)의 내사기가 수록된 판본은 4종이<sup>29)</sup>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이다. 이 또한 『한국고인쇄기술사』 및 『한국목활자본』에 안평대군자체 또는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대표적인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인 『내훈』도 언해본인 것으로 보아, 언해본 인출에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이 종종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기 2종은 모두 내사본으로 최근 내사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재준(2016)의 경우 이전 연구자와는 달리 올바른 판종을 알려주고 있어 도움이 된다.<sup>30)</sup>



<그림 1> 대학언해(규장각소장 奎4027)



<그림 2> 시경언해(규장각소장 奎3032)

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 소장 『시전대전』 역시 경오자체훈련도감자가 아닌 을해자체훈련도감자

28) 『대학언해』의 판본과 관련한 서지학 논문에서도 이는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대학언해』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정왕근,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3). ; 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博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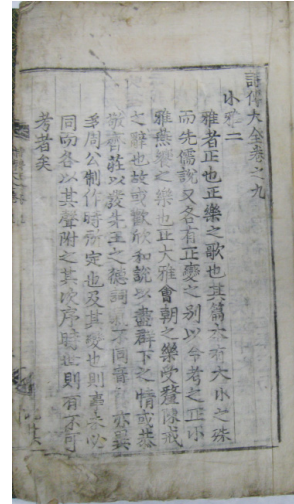
29) 규장각 소장본 청구번호: 오대산내사본<奎2425>, 강화내사본<奎3460>, 태백산내사본<奎3032>, <가람古 181.1-Si27ee>

30) 이재준에 의한 연구에서 『대학언해』, 『시경언해』의 판종이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기재되었다. 이재준, “朝鮮時代 內賜本 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6).

본이다. 비고란에 전거로 기재된 국립도서관 일산문고 목록은 1970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들어진 책자형 목록으로 훈련도감자편을 살펴보면 광해군 2년의 안평대군체자 『시전대전』 2책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실물을 확인한 결과 이는 경오자체가 아닌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이다.<sup>31)</sup>

청구번호는 <일산古1233-18>이며, 실물을 살펴보면 표제지 뒷면에 “崇禎三年三月十八日”의 목서가 기재되어 있기에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규장각에 동본 <奎中1542>가 소장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이 오류는 『한국고인쇄기술사』에서만 나타나는 오류로 이후의 『시전대전』 훈련도감자의 설명은 모두 을해자체훈련도감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3> 시전대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산古1233-18)

상기 언급한 3종을 제외한 경오자체훈련도감자의 현전본 현황은 총 8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경오자체 훈련도감자 現傳本 현황

	서명	간행년	변란	행자수	어미	
1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	[萬曆43(1615)]	雙邊	9/16	內向3葉	
2	攷事撮要A 1612跋	萬曆40(1612)跋	雙邊	10/17	內向3葉	
3	攷事撮要B 1613跋	萬曆41(1613)印	雙邊	10/17	內向3葉	
4	史纂	史纂(全選)	萬曆40(1612)跋	雙邊	9/16	內向3葉
		史纂抄選	萬曆40(1612)跋	雙邊	9/16	內向3葉
5	書傳大全	天啓7(1627)賜	圖, 雙邊	10/18	內向3葉	
6	小學諸家集註	萬曆40(1612)賜	雙邊	9/16	內向3葉	
7	朱文公校昌黎先生集	萬曆38(1610)印	雙邊	9/16	內向3葉	
8	孝經大義	崇禎4(1631)以前	雙邊	10/16	內向3葉	

<표 3>을 보면, 상기의 오류로 판명된 3종을 제외하고, 1종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고려대 소장본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만송 B4 A85D 11>은 선행 연구에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소개가 되지 않은 판본으로 권11의 南宋條만 남은 영본 1책본이며, 타 소장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판본이다.

31) 『시전대전』의 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 소장본은 모두 4종으로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일산古1233-18), 후기운각인체자본(일산古1233-21), 무신자본(일산古1233-20), 정유자본(일산古1233-22)이다.

한편, 『십구사략』에 대한 기사 중 『순암집』에 기록된 잡저를 보면, 어린이의 책 읽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십구사략은 명 초의 증선지와 여진이 편찬한 것으로 그 주해는 선조때 유신 김수 등에게 명하여 찬집한 것이다”라는 기사가 주목된다. 김수는 타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판본에 훈련도감 제조로 수록된 인물이므로 선조때 찬집한 판본을 경오자체훈련도감자로 간행하였을 가능성도 제기 된다.<sup>32)</sup>

관사항에는 木活字本(訓鍊都監字)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세부 판종 실사 조사과정 중에 발견하였다. 다만, 인기나 발문이 없어 간행년을 알 수 없는데, 온라인 목록정보에 수록된 주기사항에 따르면 이 판본은 2010년에 보존처리를 위한 전체 배접을 진행하였고, 萬曆43년(1615)에 작성된 所志를 표지로 사용하였음을 발견하여 간행년의 하한을 1615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관심제는 『史略』이며, 欄外註가 기재되어 있다.

『고사촬요』는 임진왜란 이후 총 7종이 간행되는데, 그 중 萬曆40년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萬曆41년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崇禎9년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 등 3종의 훈련도감자본 판본이 전해진다.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고사촬요』 2종은 서명 및 내용상은 동일하지만, 간행년을 기준으로 2개의 판본으로 구분되므로, 편의상 만력40년본을 고사촬요A로, 만력41년본을 고사촬요B로 설정하였다.

두 개 판본의 차이점은 내용은 같지만, 크게 목차의 체재와 발문 내용이 다르다.<sup>34)</sup> 첫 번째, 목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A본의 목록의 기술은 제1장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수록되어 있고, 후면부에 수록된 하권의 목록은 4행까지는 2단, 5행부터 9행까지는 3단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B본은 전후면 모두 2단으로 구성하여 제2장 전면까지 수록하였다.

두 번째, 발문의 차이점을 보면, A본은 “萬曆紀元之四十年歲舍壬子(1612) … 朴希賢”의 발문이 붙어있고 인기는 없다. B본은 “萬曆紀元之四十一年癸丑(1613) … 李爾瞻跋”의 발문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훈련도감 관원의 명단에 이어 “皇明萬曆四十一年癸丑仲夏下澣”의 인기가 수록되어 있다.<sup>35)</sup> 규장각에는 오대산, 태백산 내사본 2종이 소장되어 있고, 모두 이이첨의 발문이 수록된 고사촬요B본이다.

32) 이윤석의 연구에 의하면, 김수의 발문이 붙은 일본판 『십구사략』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었음을 언급하며, 조선간본을 저본으로 일본판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확인해 보니 김수의 발문은 만력10년(1582)에 쓴 것으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이 간행된 시기와 약 33년 차이이다. 이윤석, “방각본 십구사략 간행의 양상과 의미,” 『동방학지』, 제168집(2014. 12), 127.

33) 고려대 도서관 MARC 590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90태그: “襍接: 2010년 6월 전체 배접(고려대), 表紙襍接紙古文書: 萬曆四十三年(1615)十一月 日所志”; 또한 이 소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내용은 절삭되어 알 수 없으나, 李德弘이 모친의 기일 관계로 휴가를 청하는 내용이며, 그대로 하라[依由]의 題辭가 쓰여있다.

34) 두 판본의 차이점은 김치우의 연구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만력41년본은 40년본을 재간한 것에 불과하고 간행취지도 동일하다고 기술하였다. 판본 역시 2개종으로 구분하였다. 김치우, “攷事撮要의 版種攷,”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1972), 131-134.

35) 만력40년본인 고사촬요A본은 박희현의 발문 이외에는 주기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만력41년본인 고사촬요B본의 훈련도감 관원은 李恒福, 金信元, 朴承宗, 趙挺, 崔東式, 朴希賢 등 6인이 수록되었다.

『사찬』은 明刊本 『사기찬』 가운데 73편(전선 53편, 초선 20편)만 선록하고 고급주소를 붙여 간행한 것으로 명간본을 재 산정한 판본이 바로 이 훈련도감자본이다. 실제 판본의 권수제를 기준으로 보면, 전선을 수록한 『사찬』과 초선을 수록한 『사찬초선』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선과 초선을 같이 간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종으로 구분하였다. 『사찬』 말미에 붙은 발문은 다음과 같다.<sup>36)</sup>

韓昌黎集을 이미 간행한 뒤에, 마침 太廟에 일이 있어 내가 齋房에 앉아서 제계를 하고 있는데, 員外 趙緯韓이 나를 찾아왔으므로, 내가 그와 함께 한창려집을 이어서 또 다른 서책을 간행해야 한다는 문제로 걱정을 하였다. 그러자 조 원외가 史記를 간행할 것을 권하고 인하여 평소 스스로 抄해 놓은 列傳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자 相國 李德馨이 그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에 소장되어 있는 한 本을 내주었고, 海平 尹根壽도 따라서 이 일을 찬성하였다. 또 王翁州의 史記纂 17권을 模楷하게 하고, 書信을 서로 왕래하여 그 버리고 취할 것을 論定하였다. 감주가 抄한 것은 全選과 抄選의 구별이 있으므로, 지금 전선에서는 53편을 취하고, 초선에서는 20편을 취하여 모두 73편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혹자가 초선은 너무 碎雜하지 않을까 의심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牛羊의 고기를 썰어서 접시에 놓는 것이 비록 통째로 놓는 것만은 못하나, 金을 가려내는 데는 반드시 모래를 일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또한 文苑의 한 例인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古수의 注疏에 대한 刪定의 책임은 일체 차천로에게 맡기어 모두 10개월을 걸려서 책을 이루었으니, 비록 완벽한 작품은 될 수 없을지라도 또한 學海 가운데 一鉤은 될 것이다.<sup>37)</sup>

이 발문 내용으로 보아, 이덕형의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고 차천로가 고급 주소를 산정하여 이항복에 의해 간행되었고, 『창려집』에 이어 두 번째 훈련도감자 판본으로 『사찬』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항복의 발문에 이어 훈련도감 도제조 등 간행에 참여한 관원의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 행에 “皇明萬曆四十年(1612)壬子夏五月日”의 인기가 기재되어 있다.<sup>38)</sup> 소장본은 규장각(奎中4126) 등 몇몇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한국도서관학회에서 펴낸 『한국고인쇄사』의 경오자체훈련도감자 편을 보면, 서명은 『악의전』, 간행시기는 광해군연간이며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sup>39)</sup> 그러나, 이 표제는 서명이 아니고, 『사기』에 수록된 편명으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사찬』으로 서명을 수정해야 한다.<sup>40)</sup> 또한, 타 기관에서 『馬史』라는 서명으로 소장된 영본 2책본을 발견하였는

36) 목록제는 『史纂全選目錄』이지만, 각 권수제에는 『사찬』으로 기재되어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찬』 <일산귀 2200-8>은 『사찬초선』 말미에 발문과 인기가 수록되어 있고, 규장각본 『사찬』 <奎中 4126>은 『사찬전선』 말미에 발문과 인기가 수록되어 있다.

37) 『백사집』 권2, 『史纂後跋』 본문내용과 『사찬초선』 후미에 붙은 발문내용은 동일하다.

38) 李恒福, 金晬, 黃愼, 朴承宗, 鄭賜湖, 崔起南, 車天輅 등 7인이 수록되어 있다.

39) 韓國圖書館學研究會, 『韓國古印刷史』, (三和印刷株式會社, 1976), 232.

40)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사찬』(古貴0237-12) 권4를 살펴보면 『악의전』 편 第6張이 결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연히도 결락된 이 장이 『한국고인쇄사』에 도판에 수록된 면과 일치하였다. 이는 『한국고인쇄사』 편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76년 한국도서관학회에서

데, 역시 『사찬』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권수제가 따로 없어 표제지에서 서명을 추출하였지만, 본문을 살펴본 결과 『사찬(전선)』에 수록된 권2, 권6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1)</sup>

『서전대전』은 다른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과는 달리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본을 보면 갑인자체훈련도감자 및 을해자체훈련도감자 계열의 활자가 상잡하게 섞여있고, 경오자체의 모습이 간간히 드러나 있다.

규장각에는 오대산본과 태백산본을 비롯하여 각 사고에 1627년에 반사된 『서전대전』이 소장되어 있다.<sup>42)</sup> 이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1232-16), 고려대(신암 A2 A1N) 등에 소장되어 있다.

『소학제가집주』는 이이가 제가의 소학을 집주하여 편찬한 것으로, 이전에는 필사본만 존재하던 것을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처음 간행하였다. 이 책 말미에 수록된 발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 점을 걱정하여, 망녕되이 여러 설들을 참고하고 교정하여 지취를 회통시켜서 考閱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하루는 鐵原府使 金長生이 찾아왔으므로 인하여 이 사실을 언급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粟谷이 이미 먼저 주관하여 처리해 놓았는데, 그대가 여찌 거둬 노고를 할 것이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소학 한 질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래서 내가 붓을 놓고 그 일을 중지하며 말하기를,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는 참으로 스승은 편안하게 지도하여도 학생의 진취도는 갑절이나 되는 셈이로다.”하였다. 그리고 인하여 이를 史纂에 이어서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게 하는 바이다.<sup>43)</sup>

『사찬』에 이어 『소학』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김장생이 소장하고 있던 율곡저본의 『소학제가집주』를 본으로 하여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이는 성혼에게 발문을 부탁하는 등 이 책을 간인할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이 편집본이 돌아다니다가 훈련도감자본으로 간행되는데, 당시의 기호학과와 학문이 표출될 수 있는 신호탄 격으로 소학의 간행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학』은 이 집주본을 확보함으로써, 『소학집설』, 『소학집성』에 이은 또 하나의 주석서를 확보하게 된다.<sup>44)</sup>

6권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발문 및 인기는 권6의 권말제 이후, 成渾의 小學集註跋, 李恒福의 小學跋에 이어 훈련도감 관원의 명단이 있고,<sup>45)</sup> 이어 3행의 공란을 두고 “皇明萬曆四十年壬子

발행한 『한국고인쇄사』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마련된 회의기구였기 때문에 국립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고인쇄사』에 수록된 도판은 책 본문과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한지로 인쇄하여 부착된 상태이다. 한국도서관학회, 『韓國古印刷史』(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6), 232.

41) 계명대 소장 『馬史』는 2책의 영본으로 권2의 『蘇秦列傳』, 『張儀列傳』, 『陳軫列傳』 편과 권6의 『陳涉世家』, 『項羽列傳』, 『張耳陳餘列傳』, 『蕭相國世家』, 『留侯世家』 편이 수록되어 있다.

42) 내사본으로 天啓七年(1627)八月日에 太白山史庫<奎中227>, 五臺山史庫<奎中1905>, 春秋館<奎中882의2>, 江華史庫<奎中882의3>, 香山史庫<奎中882의4>, 茂朱史庫<奎中882의1>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43) 『백사집』 권2, 小學說跋 ; 이 내용은 백사집에는 『소학집설』로 수록되어 있고, 『소학제가집주』 발문에는 『소학발』로 편명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4) 정호훈,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학보』 31호(2008), 121-122. ; 한편 정호훈은 이항복의 발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因續史纂入梓...”를 실록편찬에 이어 입재했다. 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사찬을 서명으로 보지 않은데서 오는 오류로 보인다.

仲冬上澣”의 인출기가 수록되었다.

『주문공교창려선생집』은 상기 발문에서 살펴본 대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중 가장 먼저 간행된 판본이다. 본문 40권, 외집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6)</sup> 전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찾기 어렵고, 산일되어 영본으로 소장한 기관이 대부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복각본에 기록된 간기를 통해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간행년을 추정하였는데 최근 인기가 수록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을 실사한 바 있다.<sup>47)</sup> 권40의 권말제 및 이항복의 발문 이후는 제작에 참여한 훈련도감 관원의 명단에 이어 “萬曆三十八年(1610)八月”의 인기가 나타나고 있다.<sup>48)</sup>

한편,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유 시문 전집은 『주문공교창려선생집』 위주인데, 갑인자본과 병자자본 등의 금속활자본 및 훈련도감자본 등을 저본으로 복각본들이 지방 관부에서 유통되었다.<sup>49)</sup>

효경관련 서적으로 조선시대에는 3종이 주로 유통되었다. 『효경간오』, 『효경언해』, 『효경대의』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 『효경대의』는 효경대자본 계통, 훈련도감자본 계통, 정유자본 계통 등 활자명칭을 기준으로 한 세부계통을 세울 수 있다.<sup>50)</sup>

편년사 기록을 살펴보면, 선조 37년(1604) 실록기사에 평양관찰사 金信元이 평양활자 인출의 효경대의 15권을 을람을 위해 진헌하는 기사가 있다.<sup>51)</sup> 또한 인조 9년(1631) 승정원일기에 효경대의 400권에 대해서 반사하라고 전교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sup>52)</sup> 이 반사 기록은 1631년 내사된 경오자체 훈련도감자 복각본을 지칭하며 현재 규장각에 전해지고 있다.<sup>53)</sup>

연구 대상본인 고려대 소장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화산 A10 A2D)은 불분권 1책본으로 成化 22년(1486) 淳安徐貫(明)의 발문이 붙어있고 간행 당시의 주기사항은 찾을 수 없다. 인출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610~1631년 사이로 설정할 수 있겠다.

45) 제작에 참여한 훈련도감 관원의 명단은 李恒福, 金晬, 金信元, 黃愼, 朴承宗, 尹守謙, 金延慶 등 7인이 수록되어 있다.

46) 김수형의 연구에서는 주문공교창려선생집과 외집을 구분하여 수록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1종으로 간주하였다.

47) 계명대본 영본3책, (고) 812.081 한유주공

48) 제작에 참여한 관원은 李恒福, 金晬, 李廷龜, 鄭賜湖, 李準, 愼識 등 6인이다.

49) 당윤희, 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2010), 378.

50)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5권 1호(2012), 83.

51) 『朝鮮王朝實錄』 宣祖37(1604) 5월 18일 ; 옥영정은 상기 연구에서 개인소장의 목활자본 효경대의(10행17자, 내향흑머미의 판식)를 발견하고 이 판본이 평양부에서 1604년에 인출한 판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옥영정(2012), 74). ; 참고로 이 소장본은 최경훈의 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었다(최경훈, “조선전기 주자저술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2009), 459).

52) 『承政院日記』 仁祖9年 辛未(1631)10月10日.

53) 1631년에 태백산(奎中1819), 오대산(奎中1820), 강화(奎中1131), 춘추관(奎中1137)에 내사된 경오자체훈련도감자 복각본이다. ; 한편, 옥영정(2012, 73.)의 연구에서 강화사고에 반사한 책으로 규장각소장본의 청구기호를 <古1328-3>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奎中1131>본으로 정정한다.

### 3.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서지적 분석

이 장에서는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8종을 대상으로 시기별 및 형태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 3.1 시기별 분석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간행 시기를 발문 및 인기 정보에 의거해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8종의 판본 중 광해연간에 6종, 인조연간에 2종이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인기가 수록된 판본은 4종이고 발문이 수록된 판본이 1종, 시기 추정본이 3종이다.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은 대체로 광해군 연간인 1610~1615년 사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1627년에 내사된 『서전대전』은 타 활자와의 혼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아 비교적 늦은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간행 시기별 현황

NO	서명	간행시기	월	간행기록	
1	朱文公校昌黎先生集	光海 2(1610)	8월	인기	萬曆三十八年八月
2	史纂	光海 4(1612)	5월	인기	皇明萬曆四十年壬子夏五月日
3	攷事撮要A		7월경	발문	萬曆紀元之四十年歲舍壬子七月
4	小學諸家集註		12월	인기	萬曆四十年壬子仲冬上澣
5	攷事撮要B	光海 5(1613)	5월경	인기	皇明萬曆四十一年癸丑仲夏下澣
			9월	내사기	萬曆四十一年九月日…五臺山史庫上…太白山史庫
6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	[光海 7(1615)]	11월경	배접지 추정	萬曆43년 11월에 작성된 所志
7	書傳大全	仁祖 5(1627)	8월	내사	天啓七年八月日書傳一件太白山史庫上…五臺山史庫…茂朱史庫…春秋館…江華史庫…香山史庫
8	孝經大義	仁祖 9(1631)以前		복각본 이전	-

내사본은 3종으로 1612년 내사의 『소학제가집주』, 1613년 내사의 『고사촬요』B본, 1627년 내사의 『서전대전』이다. 모두 선사시기가 압인되어 있고, 각 사고에 반사되었다. 『소학제가집주』와 『고사촬요』에는 동일하게 右承旨 李信元의 수결이 있고, 『서전대전』에는 내사라는 표현과 수결이 없이 반사되었다.<sup>54)</sup>

54) 『小學諸家集註』內賜記: 萬曆四十一年十二月日 內賜 小學一件 太白山上 右承旨 臣 李; 『攷事撮要』(B) 內賜

### 3.2 형태별 분석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8종의 형태적 특징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은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판식 및 주제별 현황

NO	서명	간행년	판식			사부분류
			변란	행자수	어미	
1	朱文公校昌黎先生集	萬曆38(1610)印	雙邊	9/16 註雙行	內向3葉	集部 別集類
2	史纂	萬曆43(1612)印	雙邊	9/16 註雙行	內向3葉	史部 史抄類
3	小學諸家集註	萬曆43(1612)賜	雙邊	9/16 註雙行	內向3葉	子部 儒家類
4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	[萬曆43(1615)]	雙邊	9/16 註雙行	內向3葉	史部 別史類
5	孝經大義	崇禎4(1631)以前	雙邊	10/16 註雙行	內向3葉	經部 孝經類
6	攷事撮要A	萬曆40(1611)跋	雙邊	10/17 註雙行	內向3葉	子部 類書類
7	攷事撮要B	萬曆41(1612)印	雙邊	10/17 註雙行	內向3葉	子部 類書類
8	書傳大全	天啓7(1627)賜	圖, 雙邊	10/18 註雙行	內向3葉	經部 書類

이상 8종의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변란은 모두 사주쌍변으로 이루어졌다. 경오자본의 경우 『주문공교창려선생집』 1종을 제외하고 모두 사주단변인 반면에, 훈련도감자본은 모두 사주쌍변으로 훈련도감자본이 인출될 당시 변란의 모습이 조선전기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행자수는 9행16자가 4종, 10행17자가 2종, 10행16자와 10행18자가 각 1종이며, 어미는 모두 내향3엽화문어미로 동일하다. 경오자본의 판식이 9행15자 1종, 10행17자 4종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대체로 행수는 10행 이내, 자수는 17자 이내에서 주로 조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권말에는 인기와 함께 제작에 참여한 관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인기 및 명단이 수록된 판본은 『주문공교창려선생집』, 『사찬』, 『소학제가집주』, 『고사촬요』B 등 4종의 판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참여 관원 명단

NO	서명	간행년	명단	계
1	朱文公校昌黎先生集	萬曆38(1610)印	都提調 李恒福 提調 金晬 兼提調 李廷龜 提調 鄭賜湖 監校郎廳 李準 監官 愼誠	6

記: 萬曆四十一年九月日 內賜 攷事撮要 一件 五臺山史庫上 右承旨 臣 李; 『書傳大全』 內賜記: 天啓七年八月日 書傳 一件 五臺山史庫 上

NO	서명	간행년	명단	계
2	史纂	萬曆43(1612)印	都提調 李恒福 提調 金晬 兼提調 黃愼 兼提調 朴承宗 提調 鄭賜湖 都廳 崔起南 監校官 車天輅	7
3	小學諸家集註	萬曆43(1612)賜	都提調 李恒福 提調 金晬 提調 金信元 兼提調 黃愼 兼提調 朴承宗 都廳 尹守謙 監校官 金延慶	7
4	攷事撮要B	萬曆41(1612)印	都提調 李恒福 提調 金信元 兼提調 朴承宗 提調 趙挺 郎廳 崔東式 監校官 朴希賢	6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한 관원은, 『주문공고창려선생집』 6인, 『史纂』 7인, 『小學諸家集註』 7인, 『攷事撮要』B 6인으로 총 26명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都提調인 李恒福으로 4종의 판본에 모두 수록되었고, 金晬와 朴承宗이 3종의 판본에, 金信元, 黃愼, 鄭賜湖가 2종의 판본에, 李廷龜 외 9명이 각 1종의 판본 간행에 참여하였다.<sup>55)</sup>

주제별 분석에서는 경부 2종, 사부 2종, 자부 3종, 집부 1종으로 구성되었다. 현전본 상으로는 자부서적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지만, 『고사촬요』가 두 번 간행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선 이항복의 발문과 같이 당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간행을 위해서 주제별로 골고루 배분하여 간행하려는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팔리기 쉬운 책 및 거질이 아닌 소규모의 서적을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간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서적 비중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전본의 경부에서 『서전대전』 및 『효경대의』의 판본이 비교적 후기인 것도 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55) 괄호 안의 숫자는 간행에 참여한 종수로, 都提調 李恒福(4), 提調 金晬(3), 兼提調 朴承宗(3), 提調 金信元(2), 兼提調 黃愼(2), 提調 鄭賜湖(2), 兼提調 李廷龜(1), 監校郎廳 李準(1), 監官 愼識(1), 都廳 崔起南(1), 監校官 車天輅(1), 都廳 尹守謙(1), 監校官 金延慶(1), 提調 趙挺(1), 郎廳 崔東式(1), 監校官 朴希賢(1)이다.

#### 4. 결 론

본고에서는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분석을 위해 경오자본 및 경오자체훈련도감자의 판종을 재 정리하고 시기별, 형태별 분석을 통해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특징을 도출하려 하였다.

첫째, 기존에 알려진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을 재조사한 결과 『시전대전』, 『대학언해』, 『시경언해』의 3종의 판본 오류를 수정하고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 1종의 판본을 추가하여 총 8종의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을 선정 및 조사하였다.

둘째,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을 조조하여 가장 처음에 인출한 판본은 1610년에 간행된 『주문공고 창려선생집』이고, 이어서 1612년에 『사찬』, 『고사촬요』, 『소학제가집주』가 인출되었다.

셋째, 시기별로는 광해군 2년(1610)에서 광해군 7년(1615) 사이 6종의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이 인출되었고, 광해군 4년(1612)에 가장 많은 3종이 간행되었다.

넷째, 판식별로는 사주쌍변이 모두 사용되었고, 9행16자가 4종으로 가장 많았다. 어미는 모두 내향3엽화문어미가 사용되었다. 인기 및 제작에 참여한 관원의 명단이 수록된 판본은 4종의 판본이며, 가장 많이 수록된 인물은 도제조인 이항복이다.

다섯째, 주제별로는 자부가 3종, 경부 및 사부가 각 2종, 집부가 1종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자부의 『고사촬요』가 다른 판식으로 2번 수록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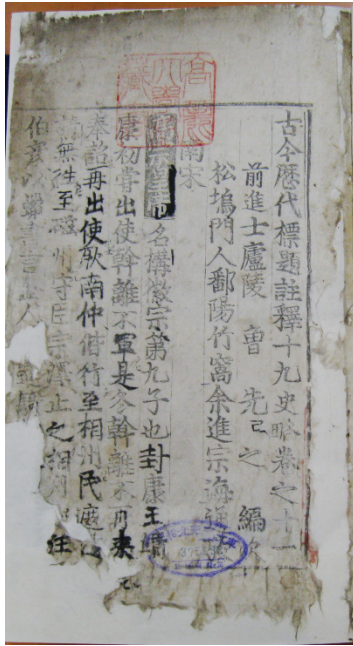
이상으로 훈련도감자본의 세부서체 중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을 대상으로 판본의 종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내 기관에 소재한 간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계점이 있다. 차후 신규 개인소장본 또는 국내외의 미발굴된 자료를 통한 다방면의 훈련도감자본 조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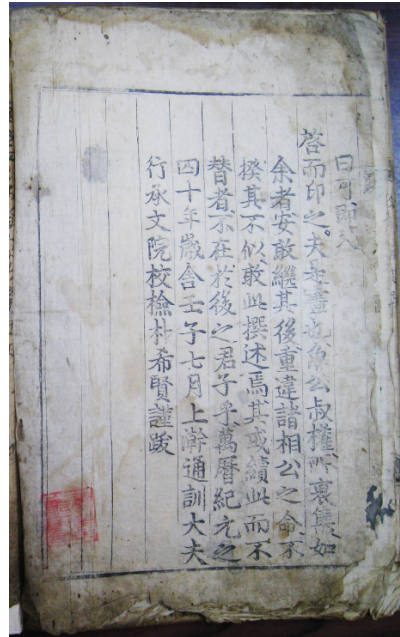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 김성수. “韓構字·訓練都監字(木活字)·丙辰倭彦字의 복원을 위한 鑄造(刻字)·組版 연구.” 『(2009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조선후기 한국의 금속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204-244.
- 金昭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博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研究院大學院. 2012.
- 金秀亨. “訓練都監字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1978.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서울: 혜안, 2003.
- 金致雨. “攷事撮要의 版種考.”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1972). 123-141.

- 南權熙. “庚午字本 『新編算學啓蒙』과 諸版本 研究.” 『書誌學研究』 第16集(1998). 335-360.
- 당윤희, 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2010). 351-381.
- 藤本幸夫. “庚午字本 歷代兵要考.” 『朝鮮學報』 第119, 120輯(1986). 368-418.
- 박문열. “庚午字·乙亥字의 鑄造와 組版에 관한 연구.” 『(2008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조선전기 한국의 금속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201-320.
- 白麟. “朝鮮後期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研究(上): 宣祖25~隆熙4年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3號(1969. 3). 507-544.
-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書誌學研究』 第42輯(2009. 6). 267-298.
- 沈慶昊. “宣祖·光海君朝의 韓愈文과 史記 研鑽에 관하여 - 韓愈文과 『史纂』의 懸吐와 註解를 중심으로 -.” 『서지학보』 제17호(1996). 3-39.
- 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博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2007.
-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5권 1호(2012). 60-84.
- 옥영정. “16세기 후반~17세기 조선의 목활자인쇄와 출판문화적 의미.” 『한국문화』 72(2015). 21-46.
- 이윤석. “방각본 십구사략 간행의 양상과 의미.” 『동방학지』 제168집(2014. 12). 123-146.
- 鄭載喆. “금속활자본 『詳說古文眞寶大』의 문헌학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1권(2008). 235-265.
- 정호훈.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학보』 31(2008). 111-143.
- 車文燮. “宣祖朝의 訓練都監.” 『史學志』 4(1970). 11-30.
- 千惠鳳. “庚午字攷 - 主로 鑄造年代와 字名을 中心으로.” 『成大論文集』 13輯(1968). 141-160.
-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千惠鳳. 『한국 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1.
- 千惠鳳.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서울: 범우,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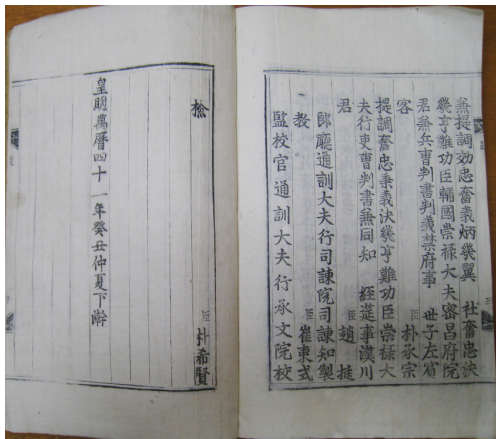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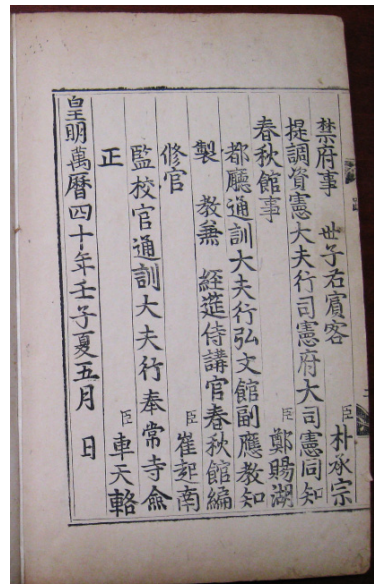
<그림 4>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 (고려대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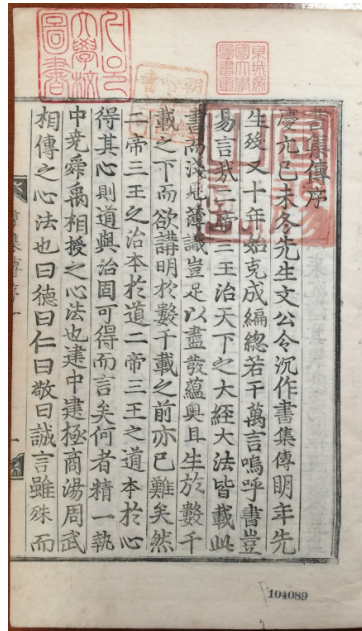
<그림 5> 고사찰요A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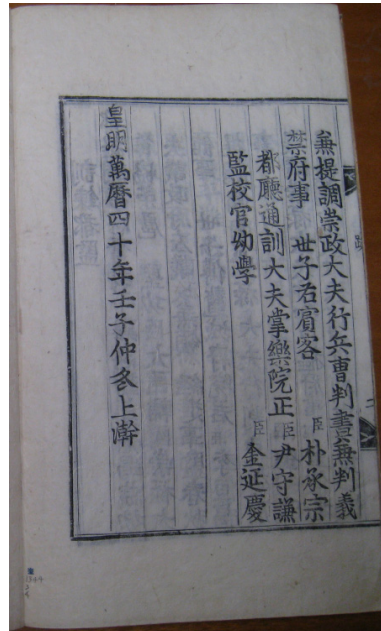
<그림 6> 고사찰요B(규장각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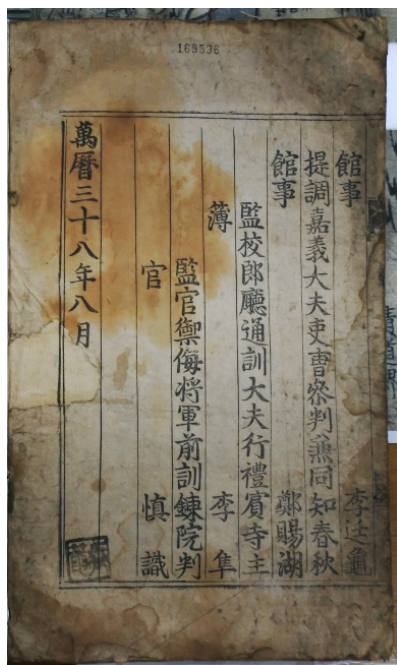
<그림 7> 사찬(규장각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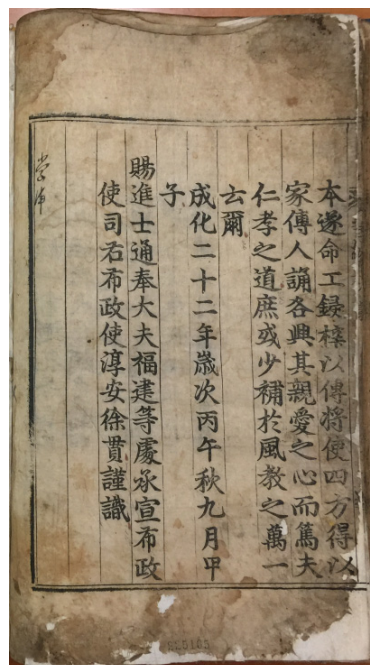
<그림 8> 서전대전(규장각소장본)



<그림 9> 소학제가집주(규장각소장본)



<그림 10> 주문공교창려선생집(계명대소장본)



<그림 11> 효경대의(고려대소장본)